

시론



박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우위라는 당일 여론조사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선거 당일 공표된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발표가 어떠한 정치 공학에 뒤집혀 졌는지 분석하기도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자 손녀 딸의 삼촌으로 새로운 지위를 누리겠다는 소식이...

트럼프 재당선·AI·지역소멸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향해 7

하는 정부 의 정부로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로서 활동도 하면서 연방정부를 재조직하는 지도자로서도 부상한 것이다. 장석준(2024.11.13)의 분석처럼 미 대통령 선거의 수혜자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로 상징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빅테크 기업들일 수 있다. 이 기업들은 수익모델을 통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오히려 돈을 받고 글로벌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해 이를 가공·처리해 다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

데이터의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더 발전시킬 것이다. Chat GPT(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에 의해 사전에 학습받고 평가받은 후, 물음에 적합한 대화형 결과물을 생성하는 컴퓨팅 모델)와 유사한 AI의 등장과 발달은 개인과 지역의 경제활동과 삶을 더욱 글로벌 플랫폼 기업/빅테크 기업들에게 의존하게 할 수 있다. 글로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산과 소비 방식은 하버드 대학의 로베르토 움게 교수의 '지식경제의 도래'에서 주장처럼, 개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와 가능성을 주며,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고유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빅테크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한편, 데이터 이용과 가공시에는 이들에게 유료로 구입하는 등 종속되는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社說

예산 무더기 미집행 광주시 Y프로젝트 순항 의문

광주시의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재정 투입이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강기정 시장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냐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Y브릿지의 경우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착수돼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활력추진본부의 1억원 이상 사업 15건 예산 규모는 115억4천여 만원이며 집행률은 고작 11.9%에 머물러 있다. 특히 6건이 Y프로젝트 관련으로 영산강 황룡강 Y브릿지(8억), 송산섬 테마시설(5억),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 습지 조성(1억)은 제로였다.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설계 공모 미완료,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었다. 영산강 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10억)의 집행률은 40.0%고,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12억)은 5.7%,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12억)도 1.2%에 그쳤다.

강예코랜드, 리버리안 100리길 연결 및 공원 조성 등 4대 분야로 구분된다. 광주시는 도시이용 인구 3천만 시대 본격화를 위해 신활력추진본부를 복합소방물 건립과 함께 Y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는 기점으로 재편했다. 2030년을 '대전환의 해'로 정해 민선 8기 후반기 2년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한 배경에 Y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지만 실상은 지부진한 모습이다. 광주시는 상상력을 더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았음에도 졸속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다른 부서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사장되거나 30% 이상 감액됐다"며 방만한 운용을 꾸짖었다. 강 시장은 광주가 더 커지고 더 생태적이고 활력과 매력이 넘치도록 시민과 함께 성공시키겠다고 한다. 제자리걸음인 Y프로젝트가 과연 순항할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소림피스킨' 전남 첫 발생...확산 차단에 총력을

전남 영암 소재 한우농장에서 림피스킨이 발생했다. 이 곳에서는 파리를 기르고 있으며 피부결절(혹)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나 신고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인근 농가들은 안심할 수 없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감염속 선별책 실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한 전남도는 인접한 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또 지역 가축시장 15개소를 잠정 폐쇄하는 한편, 공동방제단과 시·군·보유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의심축은 없는 상태다. 소림피스킨은 전국적으로 7개 시·도에서 20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중순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강원과 충북, 충남, 경북, 대구 등이 났었다. 월별로는 10월에 12건으로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당국은 확산 차단에 총력을 펼치는 상황이다. 전남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지만 당혹감

을 지을 수 없다.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백신 유예 개체뿐만 아니라 집중을 마친 개체에서도 확진됐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인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안심스러운 것은 소고기 공급이 원활하며 이번 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앞으로 면밀히 관찰해 나가기로 했다. 림피스킨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와 참파리 등 매개 곤충의 방제도 중요하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도 줄어들 것이고,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예상하지만 산발적 발생을 배제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및 주말 방제 소독의 날 운영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빈틈이 없어야 한다.

기고



정경명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장 여수시장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오는 2026년 9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개월간 여수에서 펼쳐진다. 여느덧 2년도 남지 않은 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섬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관광, 지정학적 위치, 기후변화의 영향 등 그 자체로도 특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섬은 그 어려운 접근성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며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를 만들어 냈다. 여수 안도의 선사시대 패총 유물과 제주도의 돌 문화, 그리스 산토리니의 건축물 등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그 특별한 만남!

그 방향이다. 음식도 섬마다 서로 다르다. 그 가짓수나 맛 또한 제각각이어서, 하다못해 물맛도 다르다. 섬사람들은 육지의 물맛을 보기 전까지 섬의 물(음용수)이 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섬은 또 문명의 이기가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도 많다. 여수의 경우,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만 익히 알려진 것은 23개 섬의 45편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도의 '마녀목'과 금오도 '사슴 목장', 오동도의 '이순신장군과 대나무' 등 몇몇 일부 전설은 이번 섬박람회서 뮤지컬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는 이러한 섬 본연의 특별함 이외에 인공지능 AI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될 전망이다. 이머시브(몰입형) 미디어 터널과 LED그래픽 영상장치, AR체험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도 선보인다. 현재 상용화를 위한 시험단계이긴 하지만,

UAM을 통해 하늘에서 섬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상상은 벌써부터 가슴을 설레게 한다. 앞에서 언급한 특별함 이외에 우리 여수시민들이 이번 섬박람회를 바라보는 특별함이 있다. 그것은 이번 세계섬박람회가 주최와 예산, 개최기간 등 규모면에서는 이전 2012여수세계박람회보다는 비록 작지만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다. 이미 엑스포를 성공 개최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도 반드시 성공 개최해 여수가 진정한 '전남 제1의 도시', '남해안 거점도시 마항'의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시와 조직위 관계자들과 섬박람회 주행사장 기반공사가 한창인 진도지구 일대를 둘러보며 점검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다"는 보고에 안도했으나 노파심에 "부족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오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만나게 될 이 많은 특별함이 오늘도 큰 사명감을 느낀다.

독자투고

수능시험이 끝났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에게 먼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수능은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 이젠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의 생활지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수능시험을 치렀다고 고교 3년의 학창시절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님에도 일부 학생들은 마치 졸업이라도 한 듯이 긴장감에서 해방돼 일탈적 행위를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졸업때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시기 한번의 실수가 지울수

수능이후 새로운 학습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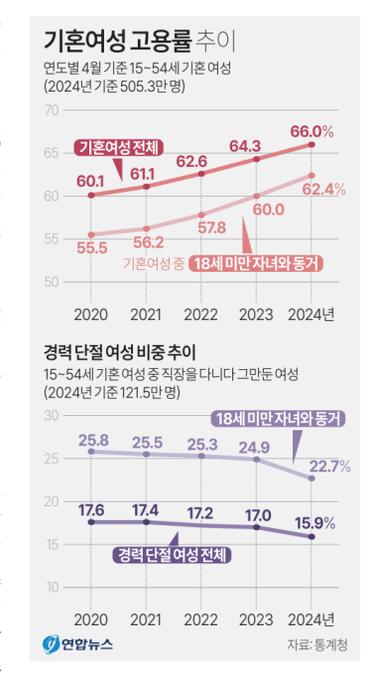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긴장감 해방과 연말 분위기에 편승하여 탈선의 길로 빠져들기 쉬우며 또한 바로 요즘이다. 수능시험 후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아무렇게나 보내기 쉬운 자투리 시간을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에 할애하는 등 자기발전의 또다른 시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무엇보다 각 가정에서부터 관심어린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 또한 수험생들에 대한 비행 예방교육과 더불어 각종 범죄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줄 것이고, 경찰에서도 학생들에 대

한 비행과 탈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청소년 유희환경은 없는지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것이다. 졸업때까지 개인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해 수능 이후 일부 청소년 탈선 예방은 물론 인성교육의 한 방편으로 삼아 청소년들의 장애 목표의식을 심어 주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학생들 또한 청소년들로서는 새로운 학습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학생 본연의 모습과 생활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고교시절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철서 경우계장>

그래픽 뉴스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다섯명 중 한 명 이상은 '경력 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은 765만 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6.0%로 작년보다 1.7%p 상승했다.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2.4%p 상승했다.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1명인 경우 63.4%, 2명일 때는 62.0%, 3명 이상인 경우 57.6%였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의 56.6%, 7-12세 64.3%, 13-17세는 69.2%였다. 15-54세 기혼 여성 중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21만 5천명으로 1.3만명 줄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5.9%로 작년보다 1.1%p 인트(p) 하락했다. 작년(0.2%p)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더 커지면서 201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아졌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427만 6천명) 중 경력 단절 여성(97만 1천명) 비중은 22.7%로 집계됐다. 작년(24.9%)보다 2.2%p 하락한 것이다. /연합뉴스



농산물 수확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창고 등 여기저기에 농산물을 보관하는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오랜시간 정성으로 가꾼 농산물을 부주의로 도난당한 경우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남지역 농산물 절도는 ▲2022년 84건 ▲2023년 63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41건이다. 매년 발생 건수가 줄고 검거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폭염으로 농산물 값이 급등하면서 절도 범죄에

농축수산물 도난 예방 주의보

대한 농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산물 절도는 주로 농촌 도로 주변이나 농로, 마을 공터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판장에 보내기 위해 쌓아두거나 잠시 보관한 사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인적 드문 시간대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거둬가기도 한다. 경찰은 11월말까지 농축산물 절도예방 기간을 설정하고 순찰강화 등 집중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피파므로 생산한 농산물이 도난당하지 않게 스스로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승우·장성경철서 안양파출소장>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